

한국경제지리학 반세기의 연구 틀 潮流*

韓柱成**

요약: 본 연구는 한국경제지리학 성립 50년(1956~2005년) 동안 경제지리학 연구 틀의 조류를 시기별 방법론상의 변화 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경제지리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한국의 지리학을 위시하여 구미·일본의 경제지리학, 경제·경영학의 기초이론, 지역문제, 문화의 다섯 가지이며, 경제지리학의 시기구분은 1956년부터 1962년까지의 '경제지리학 요람기', 1963~1970년대 후기까지의 '경제지리학 정립기', 1980년대 전기부터 1990년대 전기까지의 '경제지리학 도약기', 1990년대 후기 이후의 '경제지리학 전환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지리학의 연구 틀은 '경제지리학 도약기'까지는 지역구조가, 그 이후 '경제지리학 전환기'에는 경제의 공간체계·네트워크론으로 바뀌어졌다. 경제의 공간체계·네트워크론은 세계경제의 공간체계, 국민경제의 공간체계, 지역경제의 공간체계, 기업경제의 공간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공간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주요어: 한국경제지리학 50년, 연구 틀, 시대구분, 지역구조, 경제의 공간체계, 네트워크

1. 서론

한국의 근대지리학은 1945년 대한지리학회¹⁾의 창립과 더불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제지리학은 1956년 李廷冕의「서울市の 蔬菜 및 燃料에 關한 地理學的 考察」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을 시초로 다른 지리학 영역과 마찬가지로 광복 후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아 발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짧은 학문의 역사로 연구업적의 축적도 적었지만 초기의 연구는 농업·공업지리학,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국한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후 경제발전이 따라 연구의 분야가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노동력, 자금·자본과 더불어 유통산업, 서비스업, 교통·정보산업, 문화산

업, 재활용사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경제지리학 분야의 학술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1997년 3월 15일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시청각매체센터에서 한국경제지리학회 창립되었으며, 1998년 6월 30일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창간호가 출간되었다.

종래 경제지리학의 발달사를 다룬 연구로는 먼저 1954년 미국지리학회 50주년 때에 James와 Jones가 편집하여 발간된 『*American Geography: Inventory and Prospect*』에서 미국의 경제지리학 분야와 이에 내포된 도시·자원·농업·제조업·광물산출·교통·마케팅·레크리에이션 지리학의 각 분야에 대한 개념과 분석절차 등에 대하여 서술한 것이 있다. 또 50년사를 다룬 A.J. Scott의 연구(2000)와 矢田(2003)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Scott의 연구

* 이 논문은 2007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는 경제지리학의 발달을 공간적 분석과 지역과학으로서의 접근방법, 짧은 막간의 행동지리학(behavioral geography) 접근방법, 정치경제지리학적 접근방법의 재발견, 또 짧은 막간의 로칼리티(locality)에 관한 논쟁, 산업지구 등과 같은 신경제공간학에서의 비교우위 원천으로서의 지역세계, 그리고 과학·정치학·수사학적 접근방법에 대해 논했다. 한편 矢田는 전후 일본의 경제지리학을 규정짓는 요인을 일본과 세계의 지역문제, 일본의 지리학, 구미의 경제지리학, 경제학의 기초이론이라고 지적하고, 1940년대 후반~1950년대 전반을 경제지리학의 요람기, 1950년대 후반~1970년대 전반을 경제지리학의 이륙기, 1970년대 후반~1990년대 전반을 경제지리학 발전기, 1990년대 후반 이후를 경제지리학의 전환기로 4시기로 구분했다. 또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제지리학 발전기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를 통하여 형성된 지역구조의 편성을 생산활동의 입지를 중심으로 해명하려는 산업배치론, 지역경제론, 국토이용론, 지역정책론을 지역구조론이라는 틀 속에 넣어 규명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지리학의 전환기에는 미시·거시경제가 세계화(global)와 IT(information technology)혁명으로 지역구조론에서 경제의 공간 시스템 틀로 바뀌어 세계경제의 공간 시스템, 국민경제의 공간 시스템, 지역경제의 공간 시스템, 기업경제의 공간 시스템, 정보경제의 공간 시스템을 그 하부구조로 전개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矢田의 연구는 그 내용에 있어 공업지리학 분야만을 너무 강조하여 다른 산업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지리학 발달사 연구는 대한지리학회 창립 30주년 학술대회에서 邢基柱(1976), 趙東奎(1976)의 연구, 50주년 학술대회에서 박삼옥(1996), 이희연(1996a, pp.329-337)의 연구, 2000년 서울 세계지리학회(I.G.C.) 때의 발간물에서 김기혁(2001, pp.213-230), 이희연(2001, pp.358-361)의 연구, 대한민국학술원에서 발간한『한국의 학술연구』의「인문지리학」편에서 박삼옥(2002,

pp.97-142), 허우궁(2002, pp.291-306)의 연구, 그 후 오홍석(2004, pp.165-178, pp.451-457)의 연구와 대한지리학회 창립 60주년 학술심포지엄에서 박삼옥의 연구(2005)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경제지리학의 방법론이나 연구 틀 등의 관점에서 고찰을 한 것이 아니고 연구주제별로 그 내용을 분류하여 소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56~2005년 사이에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출판된 국내외 경제지리학 연구물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지리학 성립 50년의 경제지리학의 연구 틀의 조류를 방법론상의 변화 등에 대하여 矢田의 연구(2003)를 바탕으로 고찰하여 필자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2. 한국경제지리학 반세기 조류의 규정 요인과 시대구분

1) 한국경제지리학 반세기 조류의 규정요인

한국경제지리학 연구 틀의 조류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조사하여야 할 점은 분석시각이다. 분석시각에 대하여 矢田(2003)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각 시기에 어떤 경제지리학 학파가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 학파가 어떤 사회경제 및 관련과학의 영향을 바탕으로 知的 영위를 행했으며, 학파의 형성을 규정한 요인을 어떻게 보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경제지리학을 규정짓는 요인을 矢田의 연구(2003, pp.396-397)에 덧붙여 다음의 5가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한국지리학의 동향이다. 경제지리학의 분야에는 다방문의 연구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지리학 전공자이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적 사고가 혼재되어 있는 지리학에서 특히 사회과학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가 이동해 온 것이 우리나라 경제지리학의 주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특징에서 경제지리

학은 철저한 지역조사를 중시하고, 경제에 초점을 두어도 사회나 문화 등 보다 넓은 관점에서 사고를 한다는 점, 자연환경과의 관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이 지리학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규정요인은 한국경제지리학이 평소에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시도해 온 구미·일본의 경제지리학과 나아가 같은 주제를 취급해 온 구미의 사회과학 분야이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 그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대표적인 것이 경제입지론 등 공간경제학과 관련된 분야,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 개발전략을 위해 구축된 저개발경제론, 나아가 세계체계론이나 조절이론(regulation theory) 등 세계경제론, 신산업집적론이나 산업공간론 등 구미의 경제지리학이 우리나라 경제지리학에 당연히 강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구미 경제지리학의 분석틀을 이론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경제·경영학의 기초이론이다. 입지론의 이론적 지주인 신고전경제학, 개발경제학, 세계체계론이나 지역구조론에 깊은 영향을 미쳐온 마르크스 경제학, 최근의 환경(millieu), 착근성(embeddedness) 등의 주요어를 낳은 신산업집적론, 경제공간론과 공통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진화경제학²⁾, 나아가 기업공간론의 척추(backbone)가 되는 기업경제학 등 다양한 경제·경영학이론도 아직 큰 지주가 되고 있다.

넷째, 대부분의 경제지리학자가 문제의식을 갖는 바탕에는 한국·세계의 지역문제이다. 특히 국내 및 세계수준에서의 지역격차 문제, 국내의 대도시 과밀문제나 과소지역문제, 세계수준에서의 저개발지역문제, 나아가 공간규모면에서 지역에서 지구적 규모에 이르는 환경·재해·자원문제 등 다양한 수준과 측면에서의 지역문제이다. 이들 지역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 실태 및 형성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한 지향, 나아가서 해결을 위한 정책제기가 경제지리학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되고 있다. 또 이것이 흥미본위의 조사에 매몰되거나 추상적인 모형의 조작에 몰입되지 않고 연구의 사회과학으로

서 지탱해 온 원천이며, 시대의 많은 젊은 연구자를 끌어들이는 힘이기도 했다.

다섯째, 소득의 증대로 최근 문화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경제지리학의 연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문화경제지리학이란 1980년대부터 조직 자본주의가 해체 자본주의로 자기 변신을 함으로서 후기 근대사회의 사회양식은 후기 대량 생산체제(post Fordism)로 이행되고, 그 생산과정은 물질적 노동과정보다는 기호(sign)의 산출과 그것이 조직화된 설계(design)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해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호의 축적으로 상징되는 문화산업은 성찰적 축적(reflexive accumulation)의 대표산업이다. 장소 마케팅과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³⁾은 문화상품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산업으로 문화상품을 문화적 요소가 体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또 문화산업은 국내는 물론 다른 문화지역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제3문화(the third culture)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 금융 서비스나 문화산업이 집중된 세계도시(world city, global city)⁴⁾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산업의 지역적 분포와 그 원리를 규명하는 문화경제지리학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문화가 경제지리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5가지 규정요인이 우리나라 경제지리학의 연구 틀을 가운데 두고 그림 1과 같이 배치하면 두 번째~다섯 번째의 규정요인간의 6가지 공간이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나라 경제지리학의 知的 영위를 행하는 지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한국경제지리학의 연구 틀에서 먼저 지역문제와 구미·일본의 경제지리학이 만들어낸 지적 공간은 지리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지역·환경문제 등의 지향이 강한 '지리학 지향 학파' 이고 한국경제지리학 연구자의 대부분은 이 학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 구미·일본경제지리학과 문화 사이의 지적 공간은 지리학의 본질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국내외의 '문화경제지리학의 지향학파'가 된다. 나아가 문화와 경제·경영학 기초이론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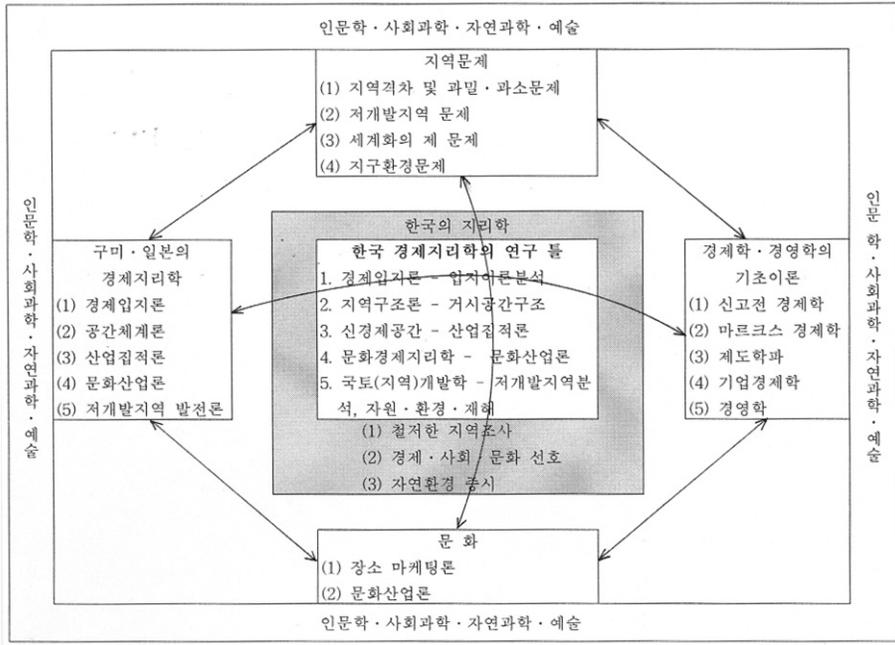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경제지리학 조류를 규정하는 요인

출처 : 矢田, 2003, p.397을 수정·재작성하였음.

사이에 형성된 지적 공간은 문화경제·경영학 등 지리학의 본질을 거의 가지지 않는 ‘문화 경제·경영학 이론 지향 학파’이다. 그리고 지역문제와 경제·경영학 기초이론 사이에서 형성된 지적 공간은 현대 국내 및 세계적인 지역·환경문제에 강한 관심을 가지면서 경제·경영학 이론으로 그 메커니즘을 해명하려는 ‘지역문제 지향 학파’로 지리학 본질의 영향이 약한 경제·경영학 출신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지역문제와 문화 사이에 만들어진 지적 공간은 지리학의 지향이 중간인 ‘지역문화 개발계획학파’로 지리학의 본질이 중간이다. 마지막으로 구미·일본의 경제지리학과 경제·경영학의 기초이론 사이에 만들어진 지적 공간은 지리학의 본질을 강하게 유지하는 ‘입지론 지향이 강한 학파’이다.

2) 한국경제지리학 반세기의 시대구분

우리나라 경제지리학 연구의 발달을 보면, 1960년

대까지는 농·임·수산업 분야의 연구가 40.9%, 광·공업이 21.3%를 차지하였는데, 1970년대에는 농·임·수산업 분야의 연구가 24.0%를 차지하여 연구물수는 많아졌으나 그 점유율은 낮아졌다. 그리고 광·공업 분야의 연구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비율은 거의 정체상태(21.9%)이었으며, 경제지역·지역개발 분야의 연구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18.5%로 증가했다. 1980년대에는 총 231편의 연구물 중 광·공업 분야의 연구가 45.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통·정보의 연구물(24.7%)의 순으로, 앞 시기에 비하여 2·3차 산업 분야의 연구물이 많아진데 대하여 농·임·수산업 분야, 지역개발 분야의 연구물이 매우 적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전반기에도 나타나 광·공업의 연구물이 반 이상을 차지했고, 1990년대 후반기에는 교통·정보(22.2%), 광·공업과 유통·서비스업·중추관리기능이 각각 19.3%를 차지했다. 2000년대 전반기에는 광·공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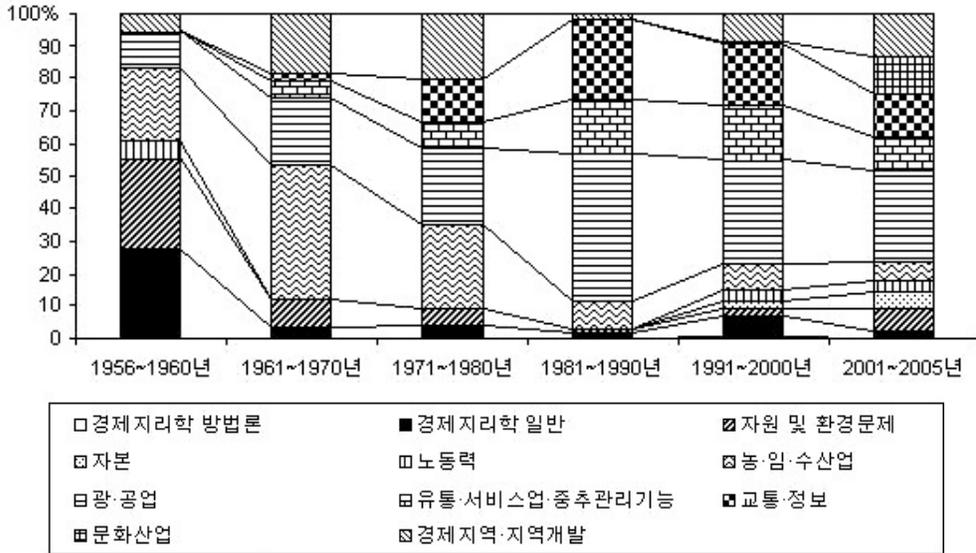


그림 2. 한국의 경제지리학 관련 논문 및 저(역)서 발표추세(1956~2005년)

자료 : 한주성, 2006, p.53을 수정하여 작성.

27.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제지역·지역개발(13.6%), 교통·정보(13.3%), 문화산업(11.2%), 유통·서비스업·중추관리기능(10.5%)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광·공업 분야의 연구물 구성비와 문화산업의 점유율이 높아진 이유는 최근 신경제 공간학파의 새로운 접근방법의 등장과 소득증대에 따른 문화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결과로, 경제지리학 반세기에 광·공업분야의 연구물이 약 30%를 차지했다(한주성, 2006, pp.53-54)(그림 2).

위와 같이 한국 경제지리학 반세기의 연구추세에 대한 조류를 개관하기에 앞서 일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기구분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경우 앞에서 지적한 한국경제지리학의 연구 潮流를 규정한 5가지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였고, 또 당시의 연구자가 이러한 규정요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지적 공간에서 지적 영위를 행했는가라는 시각에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역사가 길지 않는 한국경제지리학사의 시기를 구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기존의 시기구분을

한 徐贊基(1996, p.193)는 한국경제지리학의 발달을 1950년대 초창기, 1960년대 과도기, 1970년대 정착기, 1980년대 이후를 발전기로 정하여 기계적으로 구분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국토·지역개발의 연구 동향에서 趙東奎(1976)는 1950년대를 성립시기, 1960년대를 접근시기, 1970년대를 발전시기로 구분했고, 또 이희연(1996a; 2001, p.351)은 1974년 이전을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이에 따른 농경지의 이용, 산지·간척지 등의 개발, 그리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토지분류 및 그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연구한 응용지리학 성립단계, 또 지역간의 격차 분석과 해소방안의 모색, 지역개발과 지역정책에 대한 논의, 도농의 개발과 관리가 주축을 이룬 정착단계(1975~1984년),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고, 특히 불균형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연구 등이 이루어진 발전단계(1985~1994년), 마지막으로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고 지역간의 접촉이 빈번해지며 또한 환경문제와 삶의 질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대두된 1995년 이후를

표 1. 한국경제지리학 반세기 경제동향 및 주요 저서

세계의 움직임	한국의 움직임	한국의 경제·국토정책	국내 주요 저서	세계의 주요 저서
45 유엔발족 브리튼우드(Bretton Wood) 협정발효 46 영국 뉴타운법 성립 47 IMF업무개시 마살프랜 발표 GATT조인 48 소련 자연개조계획 49 NATO결성, 중화인민공 화국 건국	45 군정청 설립 모스크바3국 외상회의 48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제1공화국 탄생 49 전국인구조사 실시 지방자치법 제정 50 6·25전쟁 발발	49 경제부흥 5개년계획수 립	48 정갑 역, 『인문지리학』 (22 Paul Vidal de la Blache, <i>Principles of Human Geography</i>)	40 A. Lösch, <i>Die Räumlich Ordnung der Wirtschaft</i> 48 E.M. Hoover, <i>Th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i>
51 이란 석유국유화법제정 54 소련 세계 최초 원자력 발전소 건립 북극권 항로 개설 56 스웨즈 운하 국유화 57 EEC조약 조인 소련 스푸트니크 1호 인 공위성 발사 57~58 국제지구관측의 해 58 EEC발족 중국어인민공사 운동 59 세인트로렌스 수로 개통 60 OPEC 결성	52 해양주권선 선포 53 6·25전쟁 휴전협정 조 인, 서울 환도 55 부흥부 신설 60 4·19 혁명 발발	52 중앙선 개통 54 독자적인 경제부흥 5개 년계획수립 55 상공종합생산계획 및 부 흥계획 수립 56 부흥 5개년 계획 공표 57 문경 시멘트 공장 인천 판유리공장 준공 김포공항 개항 59 충주비료공장 준공 유엔개발기구(UNDP) 및 유엔특별기금(UNSF) 에 가입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발표	55 朴東昺, 『經濟地理』 表文化, 『經濟地理』 〈경제지리학 요람기〉 56 李廷冕, 『서울市の 蔬菜 및 燃料에 關한 地理學 的 考察』 58 金相昊, 『地理學概論』 59 宋鍾克, 『新經濟地理學』 陸芝修, 『經濟地理學』 崔福鉉 譯, 『經濟地理 學』(54 C.F. Jones and G.G. Darkenwald, <i>Economic Geography</i>)	53 R. Nurkse, <i>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i> 55 F. Peroux, <i>Note on the Concept of Growth Poles</i> 56 M.L. Greenhut, <i>Plant Location in Theory and in Practice</i> 57 G. Myrdal, <i>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i> 58 A.O. Hirschman, <i>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i>
61 OECD결성 62 통신위성 텔스타 1호 발 사	61 제2공화국 탄생 국토건설본부 발족 5·16 군사쿠데타 발발 63 제3공화국 탄생 65 한일협정조인	61 5개년 개발계획안 수립 영월발전소 준공 62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 획 국토건설청이 건설부 승격 울산공업지구 설정 및 가공식 새나라자동차공장 준공 64 울산정유공장 준공 65 춘천댐 준공 경인선 복선화	62 李漢淳 譯, 『國土의 開 發』 〈경제지리학 정립기〉 63 李漢淳 譯, 『地域·地方 計劃』 朴魯植·趙東奎, 『鄉土 地理調查法』 金庚星, 『人文地理學』	
67 EC 발족 ASEAN 결성	67 GATT가입 협정	67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 획 67 구로 수출산업공단 준공 69 경인고속국도 개통 69 호남정유공장 준공 마산자유무역지역 설치 70 경부고속국도 개통		66 J.R. Friedmann, <i>Regional Development Policy</i>
71 아스완 댐 완공 72 유엔 인간환경회의	72 10월 유신 단행	72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 획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71 D.M. Smith, <i>Industrial Location</i>

세계의 움직임	한국의 움직임	한국의 경제 · 국토정책	국내 주요 저서	세계의 주요 저서
73 이란 석유산업 국유화법 제정 제1차 석유파동		73 중화학공장 건설계획 확정 호남 · 남해 고속국도 준공 포항종합제철 준공 소양강 다목적댐 준공 74 서울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 개통 팔당댐 준공 75 영동고속국도 개통	73 李燦 의 譯, 『人文地理 學原理』 74 林漢洙, 『經濟地理』	73 D. Bell, <i>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i> 74 I. Wallerstein, <i>The Capitalist World Economy</i>
75 베트남 전쟁 종전				
76 미국 200해리 어업권관 수역 설정법 제정	76 100억 달러 수출	76 안동다목적 댐 준공 77 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 발표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 한 특별조치법 제정 78 국토개발연구원 개원 고리원자력 발전소 준공 수도권 전철 및 서울지 하철 건설계획 발표 79 수도권 광역개발계획 발 표 80 대청 다목적 댐 준공		76 S. Amin, <i>Unequal Development</i>
79 제2차 석유파동 미국과 중국 국교 수교 소련 아프가니스탄 침공	78 12해리 영해 발효 80 광주민주화 운동 제1 · 2차 중화학공업 투자 조정계획 확정			
	81 제5공화국 출범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인구증가 억제대책 발표	81 대우 옥포조선소 준공 8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5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 계획		81 A. Toffler, <i>The Third Wave</i> 82 D. Harvey, <i>The Limites to Capital</i> 83 J.I. Gershuny and I.D. Miles, <i>The New Service Economy</i> 84 M.J. Piore and C.F. Sabel, <i>The Second Industrial Divide</i> 85 A. Marksens, <i>Profit Cycles</i>
84 제2 시베리아 철도개통	84 외자도입법 시행	84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 확정 88올림픽 고속국도 개통 85 충주 다목적 댐 준공	<경제지리학 요약기> 85 崔運植, 『산업지리학』 韓柱成, 『交通流動의 地 域構造』	
85 미국 통상법 301조 발동				
	86 아시안게임 개최	86 농어촌 종합대책 발표 87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 년 계획 발표	86 韓柱成, 『經濟地理學』	86 P. Dicken, <i>Global Shift</i> 88 A.J. Scott, <i>New Industrial Spaces</i> 89 M. Castelle, <i>Informational City</i> M.E. Hepworth, <i>Geography of the Information Economy</i> 90 M. Porter, <i>The Competition Advantages of Nations</i>
88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NICs를 NIES로 개칭 89 APEC 창설 베르린 장벽 철폐 90 페르시아만 전쟁 발발 독일 통일	88 제6공화국 출범 서울올림픽 개최		88 李喜演, 『經濟地理學』 金在珖 譯, 『農業地理學 入門』	

세계의 움직임	한국의 움직임	한국의 경제·국토정책	국내 주요 저서	세계의 주요 저서
91 독립국가 연합(CIS) 창설 92 리우 선언	91 지방자치제 실시 남북직교역 승인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ILO가입	91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정 92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92 洪淳完 외, 『한국의 場市』	91 P. Krugman, <i>Geography and Trade</i>
93 EC 단일 유럽시장 출범 EU 발족	93 중국과 국교수립 대전엑스포 개최 공기업 민영화 발표 금융실명제 실시	93 신경제 5개년계획	93 邢基柱, 『農業地理學』	
94 NAFTA 발효 95 세계무역기구 출범 일본 한신대지진 발생 미국 인터넷 가상은행 최초 개업	94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 대통령 세계화선언 95 쓰레기 종량제 실시 수출 1,000억 달러 돌파		94 韓柱成, 『流通의 空間構造』 95 최운식, 『한국의 육상교통』 최병두 역, 『자본의 한계』	95 D. Massey, <i>Spatial Division of Labour</i>
96 ASEM 제1차 회의 개최	96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발표 코스닥 증권시장 개설	96 OECD가입	<경제지리학 전환기> 96 韓柱成, 『交通地理學』 98 박삼욱 외 譯, 『경제구조조정과 산업공간의 변화』	97 C. Freeman and L. Soete, <i>The Economics of Industrial Innovations</i>
97 영국 홍콩을 중국에 반환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97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98 노사정위원회 출범 과잉·중복투자 업종에 대한 기업간 사업구조조정 합의	97 IMF 긴급구제금융 지원 요청	99 김기혁 譯, 『서유럽의 농업변화』 박삼욱, 『현대경제지리학』	M. Stoper, <i>The Regional World</i>
99 파나마 운하 파나마에 반환	99 신한·일 어업협정 발효 00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99 전자거래 기본법 제정	00 권오혁, 『신산업지구』 남영우 외, 『경제·금융·도시의 세계화』 박인성 외, 『중국경제지역론』	98 H.J. Braczyk et al., eds., <i>Regional Innovation System</i> 00 G.L. Clark et al., <i>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i>
01 9·11테러 중국 WTO에 가입	01 IMF차입금 완전상환 02 한·일 월드컵 개최 부산 아시안 게임 개최	01 인천국제공항 개항	01 최병두 역, 『정보 도시』 02 박영한 외 譯, 『노동시장의 지리학』 이학원, 『한국의 경제개발·국토개발·공업개발정책과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01 T.R. Leinbach and S.D. Brunn, <i>World of E-Commerce</i> 02 A. Kelleman, <i>The Internet on Earth</i>
03 이라크전쟁 발발	04 한·칠레 FTA비준 동의안 의결 주 5일 근무제 실시	03 남·북한 철도 연결 04 경부고속전철 개통 05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통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 및 혁신도시 입지 선정 기업도시 시범 사업지역 지정	03 김목환 외 역,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한주성, 『유통지리학』 04 Joh, Chang-Hyeon, <i>Measuring and Predicting Adaption in Multidimensional Activity-Travel Patterns</i> 05 황만익, 『토지이용 변화와 환경』 이기석 외, 『북한 주요 산업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와 개방지역에 관한 연구』	04 J. O'Loughlin et al., <i>Globalization and Its Outcomes</i> A. Hughes and S. Reimer, <i>Geographies of Commodity Chains</i> 05 R.L. Heron and J.W. Harrington, <i>New Economic Spaces</i>

* 앞부분의 숫자는 연도를 나타냄.

자료 :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80, 韓國經濟年表(1945-1979); 韓國銀行, 2000, 韓國의 金融·經濟年表.

성숙단계로 구분했다. 그리고 박삼옥(2005)은 한국지리학 연구의 시기구분을 1970년대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2001년 이후의 4시기로 구분했다. Baik(2006)은 한국 인문지리학 발달의 시기구분을 1945~1970년을 설립 및 개편기(foundation and reorganization), 1971~1980년을 요람기(infancy), 1981~1990년을 성장기(growth), 1991~2001년을 도약기(jump and rush), 2001~2005년을 성숙 및 세계화기(maturity and globalization)로 구분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지리학 연구의 주제와 접근방법으로 보아 李廷冕의 석사학위논문이 발표된 1956년 시점부터 대한지리학회 기관지인『地理學』이 출간되기 이전인 1962년까지는 '경제지리학 요람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지리학 비전공자의 경제지리학 개론서가 발간되었고, 각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지리학 분야별 최초 석사학위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다음으로 1963~1970년대 후기까지를 '경제지리학 정립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대한지리학회 기관지인『地理學』을 위시하여 각종 지리학 학술잡지에 경제지리학의 분야별 논문이 발표되고 계량적 분석방법도 등장하였다. 1980년대 전기부터 1990년대 전기까지 고도경제성장을 거친 시기를 '경제지리학 도약기' 1990년대에 첨단기술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한국경제지리학회 창립되었고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 속에서 구미의 경제지리학의 영향을 한층 강하게 받고 지식기반산업⁵⁾이 발달한 1990년대 후기 이후를 '경제지리학 전환기'로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1) 경제지리학 요람기(1956~1962년)

6·25전쟁 이후 경제부흥에 힘쓴 이 시기는 신고전입지론과의 영향을 받은 M.L. Greenhut(1956)의 공업입지론과 지역개발이론에 관한 G. Myrdal(1957), A.O. Hirschman(1958)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시기의 특징은 B. Dietrich의 교호작용론을 배경으로 기술한 내용과 C. Clark의 이론을 배경으로 산업구조와 소득수준에서

경제지역을 분석한 일본 경제지리학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는 지리학 비전공자들이 경제지리학의 생산분야별 내용과 일부의 입지론으로 구성된 경제지리학 개론서를 출간하였으며, 또 자원의 수급관계와 국제문제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邢基柱, 1976, p.29) 구성된 지경제학(geo-economics)도 출판했다.

이 시기에 경제지리학 최초의 석사 학위논문인 李廷冕의 논문(1956)을 시작으로 徐贊基(1958), 뉴질랜드인 G.A. Dunn(1958), 邢基柱(1960)의 논문이 각각 발표되었다. 徐贊基는 석사학위논문의 연구대상지역인 경북지역을 확대하여 경영면에서 남한의 농업지역을 구분한 연구(1962)도 발표하여 객관적인 농업지역의 설정을 시도했다. 이들 연구는 농업·공업의 입지변동과 지역분화의 형태를 나타낸 산업의 지역구조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위의 세계 저서의 출간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개발로 국토·지역개발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 1957년 陸芝修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본과제와 자원개발에 관한 제 문제 및 공업용수에 대하여 논해(趙東奎, 1976, p.51) 최초의 국토개발론에 관한 연구물을 발표하였고, 그 후 1962년에 李漢淳은『國土의開發(U.N. : Regional Planning)』을 출간하여 농·공업과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됨으로서 이와 관련된 경제지리학자들의 국토·지역개발에 대한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 경제지리학 정립기(1963~1970년대 후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고 산업단지과 경제의 하부구조가 건설된 이 시기는 공업입지에 대한 D.M. Smith의 연구(1971), 국제자본투자와 공업생산을 무역으로 공업발전단계를 구분한 R. Vernon(1966)의 연구, 후기산업사회에 대한 D. Bell의 연구(1974),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J. Friedmann(1966), I. Wallerstein(1974), S. Amin의 연구(1976)가 발표되었다. 또 실증주의가 발달한 이 시기는 F.K. Schaefer의「지리학에 있어서 예외주의

(Exceptionalism in geography)」가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계량적 분석방법에 의한 법칙 내지는 모형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강했고, 이에 비판하여 인문주의 접근방법도 등장했으나 인문주의 접근방법은 경제지리학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963년에 대한지리학회 기관지인 『地理學』이 발간되었지만 1968년 이전까지는 비정기적으로 출간되어⁹⁾ 요람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은 학회지와 그 밖의 각종 학술지에 후속연구물들을 발표하고 기존의 연구영역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분야도 개척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李廷冕(1966)의 농업지역 설정에 관한 연구와 徐贊基의 후속연구로 우리나라 농업현상에 관한 계량적 분석을 토대로 실증주의 관점에서의 농업의 지역구조를 모형화한 연구(1974; 1975)와 문화와 경제사적 관점에서의 농업연구(金相昊, 1969)도 이루어졌다. 농업지역의 구조에 대한 연구는 1930~1960년대 선진국의 농업지역 연구에 계량적 분석을 이용하여 객관화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근교의 원예 농업과 낙농업 입지에 대한 연구(朴贊石, 1966; 田成大, 1968; 許宇亘, 1974; 李鶴源, 1974)가 이루어져 산업화로 도시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근교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공업분야에서도 邢基柱의 후속연구(1965; 1966a; 1966b; 1968; 1975) 뿐만 아니라 공업의 입지변동과 지역구조에 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상품유통에 관한 연구(李東潤, 1970; 韓柱成, 1974)도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도시에서 소비자의 지출도 늘어남에 따라 상점가에 대한 연구(邢基柱, 1966c; 成俊鏞, 1971),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崔雲植, 1972)도 등장하여 행동지리학적 접근방법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소농사회에서의 정기시 연구(李中雨, 1968; 1970)는 경제발전과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W. Christaller의 중심지 이론에 적용하려는 시도(柳佑益, 1972)도 나타났다. 따라서 종래의 정태적 생산부문 연구에서 동태적 유통부문과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가 전개되었다. 그

리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행됨으로서 국토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공간구조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국토이용을 보다 과학화하려는 연구가 경희대학교 국토종합개발연구소에서 지리학과 소속 朴魯植·趙東奎·吉鎔鎡(1969 등)과 그밖에 여러 연구자에 의해 토지이용계획 및 국토·지역개발의 측면에서 산지의 토지이용계획과 도시토지이용 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1963년에 李漢淳은 『地域·地方計劃』에서 개발방향과 기구 및 실천 계획의 사례 역서도 출간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는 삶의 질에 대하여, 국토조사 토지이용 연구는 토지분류체계 정립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경제지리학 여러 분야의 연구는 시금석으로 발표되어 학문의 다양화와 함께 정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때에 한국경제지리학이 신고전 경제학 이론을 통해 경제지리학을 구성하려는 의지가 컸고, 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지론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전경제학파의 미시적 이론을 지역에 투영하여 산업입지와 지역구조를 규명하고, 계량적인 분석방법을 이용한 실증주의 연구가 등장했다(형기주, 1998, p.8). 여기에서 지역구조론은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 만들어가는 지역에 힘을 넣었다고 생각한다. 고도 경제성장기를 통해 형성된 지역구조의 편성을 생산활동의 입지를 중심으로 해명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생산활동이 만든 지역구조는 사람들의 생활공간 및 생활구조를 강하게 규정한다. 그러나 노동력을 공급하고 세대를 재생산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영위, 즉 재생산활동도 상대적으로 독립한 형태로 지역구조의 편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3) 경제지리학 도약기(1980년대 전기~1990년대 전기)

이 시기는 경제지리학 전공 해외유학파들이 많이 귀국한 시기로 새로운 접근방법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경제지리학의 지평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즉, 1970년대까지의 실증주의 접근방법에서 행동주

의·구조주의·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영어권의 경제지리학은 신고전경제학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는데, 행동주의 지리학의 최초의 연구는 J. Wolpert(1964)에 의해 이루어졌고,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의 유효성을 과시한 것은 D. Massey의 저작(1984)이다. 그리고 J.I. Gershuny와 I.D. Miles의 새로운 서비스 경제에 대한 연구와 M.J. Piore와 F. Sabel(1984), A.J. Scott(1988), M. Porter(1990), P. Krugman(1991)의 신경제공간학 연구와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예견한 A. Toffer(1981)의 영향으로 M. Castelle(1989)의 정보도시와 M.E. Hepworth(1989)의 정보지리학 발달을 초래했다.

이 시기의 한국경제지리학계에서는 경제지리학 개론서(韓柱成, 1986; 李喜演, 1988)와 농업(金在珖, 1988)·유통(이재하 외, 1992; 韓柱成, 1994)·교통분야(韓柱成, 1985a; 최운식, 1995)의 저서도 출간되었다. 그리고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에 의한 경제공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본에 관한 연구(최병두, 1995), 제도적 접근방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Choi, 1993), 자본주의 경제사회발전과 농업지역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徐贊基, 1992), 사회·문화사적 관점에서의 농업공간을 다룬 연구(邢基柱, 1993)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고도경제성장으로 기업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종래 입지론과 지역구조의 입장에서 연구되어 온 공업현상을 다지역기업 관점에서의 연구(黃晚益, 1983; Park and Wheeler, 1984), 기업조직과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Park, 1990), 또 기업의 기술력이 경쟁의 근원으로 첨단산업입지, 기업의 조직과 전략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계화·정보화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경제공간의 변화, 유연적 생산체계, 다국적 기업의 역할, 기업간 연계구조 등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박삼욱, 2002, p.107). 유통에 관한 연구는 정기시의 이동상인의 순회 이동패턴에 관한 연구(Park, 1981), 도심 상점가에 대한 연구는 경제지리학 정립기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유통부문에서는 소매판매활동의 공간

적 변화에 대한 지역구조 관점에서의 韓柱成 연구(1992a)와 더불어 새로운 유통업체 및 생산에서 소비자 사이의 상품별 유통과정을 체계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한 연구(韓柱成, 1985b; 1988a; 1988b; 1989)도 대두되었다. 그리고 서비스 경제화로 생산자 서비스(producer service)의 지역적 분화 패턴에 관한 연구(李喜演, 1990)도 이루어졌다. 또 새로운 주제의 연구로서 경제적 중추관리기능의 연구소 입지에 관한 李定妍의 연구(1990), 교통분야에서는 대도시권의 확대에 통근에 관한 연구(許宇巨, 1987), 교통수단의 선택에 관한 행동지리학적 연구(許宇巨, 1986), 관문에 관한 배후지와 지향지의 연구(曹壽敬·韓柱成, 1990; 曹壽敬, 1993), 노선망(韓柱成, 1992b; 1993; 1995), 여객과 화물유동에 관한 연구(韓柱成, 1982a, b; 1983; 1984; 朴宗玄, 1995)가 이루어져 실증·행동주의와 교통 시스템적 연구가 이루어져 교통지리학 접근방법이 다양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화로 인하여 정보관련 산업의 지역적 분포패턴에 관한 지역구조적 연구(李喜演, 1993)도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국토·지역개발에 대한 연구는 국토개발원에서 지리학자들이 참여한 보고서가 출간되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북아 개발권에 관한 연구(Yu, 1993)와 더불어 1970년대 초반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에는 환경윤리에 의한 지역개발 방식도 제안(柳佑益, 1992)되었다. 이희연(1996a, pp.338-339)은 국토·지역개발에 대한 연구는 사용자·행동지향적(user and action oriented) 연구이며, 시행(implement)과 평가(evaluation)단계가 포함되는데 규범적인 차원에서 가치 평가(value judgement)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토·지역문제들을 예견하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토통일에 대비하여 국토공간조직의 재구조화와 그에 따른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4) 경제지리학 전환기(1990년대 후기 이후)

1990년대부터 21세기 초두는 세계사적 대전환기였다. 이것을 이끈 것은 산업혁명에 필적하는 IT혁명이 다. 이로 인해 선진국 기업의 세계화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또 동부유럽 사회주의가 붕괴됨으로서 후기 냉전체제로 미국의 일극체제가 확립되었다. 여기에 20세기 후반에 포드주의라고 불리는 대량생산방식이 가져온 자동차 사회와 화학혁명은 방대한 석유의 소비, 유독물질과 대량 폐기물에 의한 지구환경의 급격한 파괴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의 공간체계를 해명하려고 하면서 사실상 국민경제를 단위로 한 생산배치, 상품과 사람 및 자금의 순환에 초점을 둔 지역구조론을 재구성하려는 점이 존재하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지역구조론은 1990년 전후로 경제지리학 방법론으로 대응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는 세계적 규모에서의 문제의식이 결여되었다는 점과 좁은 산업지리에 멈춘 점 등이 그것이다(矢田, 2003, p.404)

이 시기의 해외연구로 C. Freeman과 L. Soete의 산업혁신에 관한 연구(1997), 신경제공간에 관한 M. Stoper의 연구(1997), R.L. Heron and J.W. Harrington의 연구(2005) 및 T.R. Leinbach와 S.D. Brunn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2001), A. Kellerman의 인터넷에 관한 연구(2002), 세계화와 성장과에 대한 연구로 J. O'Loughlin 외의 연구(2004), 상품사슬에 관한 A. Hughes와 S. Reimer의 연구(2004) 등으로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경제의 범위를 넘어 사회나 정치·제도·문화를 넣어 넓은 의미의 경제지리학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미의 공간 및 지역인식의 과학의 동향을 정리한 것이 矢田와 松原의 저서(2000)이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산업구조재편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때에 노동의 세

계화로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파악한 박영한 외(2002)의 연구, 종래 농업지리학이 지역성을 기술하거나 입지모형을 구축하는 연구에 머물렀는데, 농업의 산업화에 대비한 농산물 무역과 환경농업, 즉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질 높은 농산물의 공급을 위한 환경농업 정책과 농민의 태도에 관한 김기혁의 연구(1999a; 1999b)가 있다. 그리고 경제·금융·도시의 세계화에 대한 남영우 외의 연구(2000),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한 경제구조의 조정과 산업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물들을 묶어 출간한 연구(박삼옥 외, 1998), 신경제공간의 산업지구에 관한 권오혁의 연구(2000), 정보화에 따른 정보도시에 관한 연구(최병두, 2001) 등을 들 수 있다.

세계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나아감에 따라 지식이란 국가 또는 지역 경제활동의 원동력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연구도 추진되었는데, 네트워크 연구(김목환 외, 2003)나 제도학의 입장에서 지역혁신체제에 관한 연구(김선배, 2001)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유통산업의 정보화와 규제완화에 의한 자유경쟁 독점금지 행정의 강화로 소매업 경영과 다국적 소매업의 국내 및 세계 사업소망의 입지전개에 관한 연구(韓柱成, 1996, 1999), 새로운 유통업태가 등장함으로써 이에 관한 연구(徐柱鎭·韓柱成, 1999; 金英淑, 2003; Choi, 2003 등), 물류시설에 관한 연구(金基斗·韓柱成, 1998; 金善姬 韓柱成, 2003), 국제화·정보화에 관한 연구와 국제물류에 관한 연구(韓柱成, 1998; 2003; 2005), 또 GIS 기법의 발달로 소매업의 입지선정에 이를 활용한 연구(이희연·이정미, 1996b)도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서비스 산업에 관한 연구는 서비스 경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네트워크론의 관점에서 연구한 Kim(2000)의 연구가 있고, 중추관리기능에 관한 李政勳(2002)의 연구가 있다. 교통현상에 관한 연구는 사회교통지리학 관점의 연구와 함께 그래프 이론의 새로운 알고리즘에 의한 결절점의 접근성 측정에 대한 연구(Lee and Lee), 성(gender)과 통근에 관한 연

구, 역통근에 관한 연구(金相烈, 1999), 관문의 배후지와 지향지에 대한 연구(韓柱成·張在球, 1999; 張在球·韓柱成, 2000), 개인의 활동패턴에 관한 연구(Joh(2004)의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보화에 따라 케이블TV 방송국의 공간조직에 관한 연구(韓柱成, 1997), 생활정보지의 사업체 배포지역에 관한 연구(鄭恩淑·韓柱成, 2002), 인터넷 산업에 관한 연구(김현, 2001; 허우궁, 2003)도 행해졌다. 또 문화산업으로 게임산업의 집적과 학습지역에 관한 연구(이진, 2001), 음반산업(김유미 외 2001), 영화산업(이희연·이난경, 2005)의 연구 등도 등장하였다. 그리고 환경문제 중 재활용사업에 대한 입지연구(韓柱成, 2004a, b)도 이루어졌다.

한편 국토·지역개발의 연구에서는 1995년 이후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국토개발 및 부문별 개발전략과 더불어 국제화 시대의 국토개발 장기전략, 동북아 경제권 구상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였으며,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에 대한 연구도 제시되었다(이희연, 2001, p.359).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1990년대까지 입지체계에 대한 관점을, 2000년 이후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연구(변병설, 2005)로 이어져 1990년대 후반에는 토지정보체계 구축으로 국토자료관리 일원화 및 전산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국토·지역개발은 개발론자의 중심에서 보호론자의 입장으로 바뀌었다(허우궁, 2002, pp.291-306).

3. 지역구조론에서 경제의 공간체계·네트워크론으로의 전환

미시적·거시적 신고전학파와 마르크스 경제학, 경제학과 지리학, 이론과 실재라는 이원론적 틀에서 지금까지의 한국경제지리학이 어떤 분류의 균형상에서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그 균형은 크게 붕괴되어 가고 있다. 현재 어떠

한 균형점을 새로운 관점으로 할 것인가는 방법론의 전개에서 매우 주목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지리학의 전환기 이전의 연구 틀은 지역구조론으로, 이는 산업입지론과 지역체계로 구성된다. 산업입지론은 일반사회에서 경제행위를 행하는 장소 및 그들의 장소를 선택하는 행위에 관한 이론이고, 지역체계는 국민경제의 한 단위로서 산업구조, 재화·서비스, 소득·자금의 지역적 순환으로, 이들의 집합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산업지역과 크고 작은 경제권의 중층적 편성, 교통·통신망 등의 경제지리학의 기본개념을 조작하면서 국민경제의 공간체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矢田, 2000). 그리고 입지의 집합이 지역이므로 입지론은 지역구조에 포함시켜 파악할 수 있다. 또 미시적, 거시적 규모에서의 지역구조는 규모(scale)의 문제로 이들 규모를 모두 포함시킨 것이 체계이기도 하다.

지역구조론은 폐쇄체계(closed system)가 아니고 시장경제를 담당하는 기업이라는 미시적 공간행동을 기본으로 그 집합이 만들어낸 거시경제의 공간체계를 파악하는 논리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경제를 개방한 블록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의 공간체계를 파악하는 방법론으로서 유효성을 갖는다(矢田, 2000, p.301).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으로 경제지리학이 부활하고 재생되며, 경제학 체계에서 위치를 지을 수 있도록 그 지위가 급상승하고 있고, 이들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필연적인 흐름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지리학의 연구 틀의 구축은 현대경제의 주요어가 세계화와 국지화이고, 네트워크화, 신경계공간학⁷⁾의 등장 및 정보화 사회에서 각 연구 틀을 묶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공간체계·네트워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공간체계는 상호 관련된 부분공간에 의해 이룩된 전체공간으로 신산업집적이나 문화산업(장소 마케팅 포함) 등의 미시적인 경제공간이 세계화로, 소재와 반제품에 의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또 지역의 이미지와 지식기반산업을 바탕으로 가치사슬을 높여가며 경제공간으로 나아가 세계시장을 겨냥하게 된다. 그

리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syberspace)에서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 다국적 기업·세계화 통합기업(globally integrated enterprise)의 입지로 노동의 공간적 분업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현상에서 기업의 본사가 입지하는 지역이나 마케팅을 하는 장소, 통신망의 허브를 구축한 지역 등은 핵심지역에 해당되고 그 밖의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이들 두 지역 간의 상호의존관계가 활발하게 나타나 경제의 공간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공간상의 다양한 경제주체들 사이에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사회공간(박삼욱, 2006, p.644)으로서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예로서 최근 농업지리학 분야에 있어서 식료체계(food system)⁸⁾, 유통지리학 분야에 있어서 상품사슬(global commodity chain)⁹⁾,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세계체계론(Wallerstein, 1974)과 국가·지역개발론에 있어서 P. Cooke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이론은 모두 공간체계·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등장한 것이다.

한국경제지리학의 전환기 이후 경제의 공간체계·네트워크론 틀에서 먼저 세계경제의 공간체계는 국민경제의 공간체계가 확대된 것으로 독자적인 연구 주제로 성립될 수 있는데, 중핵과 주변, 불균형 발전, 블록화 등의 내용이 이에 포함된다. 냉전체제의 붕괴와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세계경제의 一體化로 글로벌 리제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경제의 공간체계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경제는 해체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국가권력과 국경이 엄연히 존재하고, 국가의 경제구조, 가치관, 문화, 제도, 역사 등이 다름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경제는 실상을 확실히 갖고 있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공간체계를 논할 때에 다수의 국민경제 공간체계의 집합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矢田, 2003, p.408). 국민경제는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토지이용, 재활용사업 등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20세기 경제사회가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의 일방통행(one-way)을 기본으로 한 이른바 ‘사

용하고 버리는 문화’의 사회였기 때문에 폐열, 폐기물을 가급적이면 적게 배출하고 동시에 자원이나 에너지를 자연에서 채취하여 인간사회에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면 적은 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되는데 이에 필요한 연구분야가 재활용 사업이다. 그래서 물질이나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폐기물의 발생을 매우 억제하면서 배출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원으로 이용하며, 마지막에 이용할 수 없는 것만을 처리하여야 한다(外川, 2002, pp.118-121). ‘정맥(靜脈) 비즈니스’ 또는 ‘정맥산업’이라고 부르는 재활용 사업은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과 재생용 가공 원료 생산업의 입지, 에코사업의 집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낳게 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의 공간체계는 국민경제의 경제체계 속에 포함되는 지역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로 산업집적, 경제권, 지역경제, 장소 마케팅과 문화산업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공간체계에서 신산업집적론이란 경제학과 지리학의 접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지적 사회경제체계의 공간변동을 생각하는데서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신산업공간경제는 경제의 세계화로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국지화로 세계화를 꾀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면에서 신경제공간도 경제의 세계화 체계와 지역경제의 공간체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유연적 생산체계와 관련된 산업집적에 특히 주목하여 신산업집적론이 경제지리학계에서 널리 알려지고, 또 개개의 산업집적의 분석과 유형화론이 활발하여 클러스터 등의 새로운 개념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지식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의 집적분석에서 지식화·정보화와의 관련에서 새로운 이론적 발전이 기대된다. 이러한 것들이 지역내부의 구조분석이라는 지역경제의 공간체계도 독자적인 접근방법의 대상으로서 위치를 지을 수가 있다.

지역경제 중 국지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요소 중에서 최근 소득의 증대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고유의 문화와 예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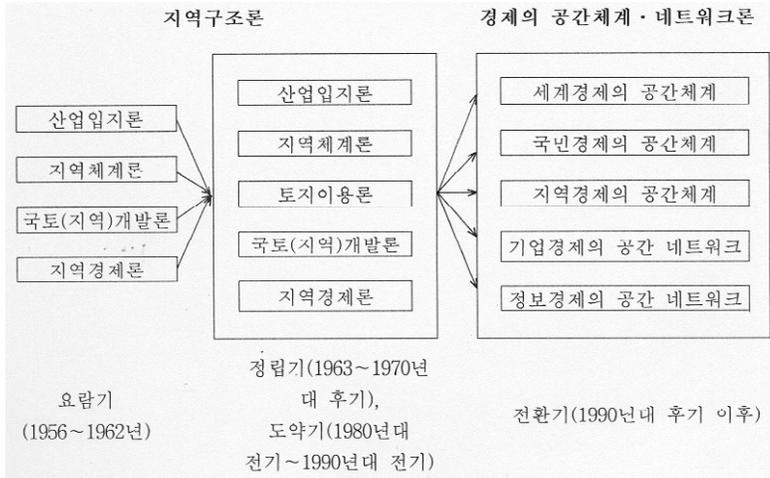


그림 3. 경제의 지역구조론에서 공간체계·네트워크로의 변화

출처 : 矢田, 2003, p.409를 수정·작성하였음.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간주되어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¹⁰⁾과 문화산업은 인터넷 시대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장소 마케팅과 문화산업은 지식기반산업으로 집적을 하여 학습지역화를 이룬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음반, 영화 등을 위시한 많은 문화상품에 지식이 대량 투입되어 문화는 지식산업화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장소 마케팅과 문화산업의 공간체계는 새로운 연구 영역이 될 수 있다

또 지역경제의 공간체계는 지역혁신체제에 의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혁신체제란 논자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를 지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한된 지리적 공간 안에 집적된 혁신 주체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적 학습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특화된 능력을 축적하며 이를 근거로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다음으로 기업공간론 연구의 흐름에서 기업경제의 공간 네트워크는 독자적인 주제로서 접근할 수 있는데, 그 내용으로 기업공간, 다국적 기업·세계화 통합기업 입지 등이 내포된다. 특히 세계화 통합기업이 지구적 수준에서 적정배치와 조달을 전개시키고, 세계경제·국민경제의 공간체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

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접근방법은 불가결하다. 또 세계경제와 국민경제의 거시적 파악과 기업의 미시적 파악이 논리적으로 다르고, 거시적 경제공간과 미시적 경제공간을 이론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산업이라는 준거시적(semi-macro) 개념은 점점 중요하여 그런 의미에서 산업공간이나 기업공간과는 다르다.

시대의 전환을 상징하는 컴퓨터의 양적·질적인 사회적 침투와 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가 융합된 정보화로 인해 그 영향을 받은 산업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래서 오늘날을 국경없는(borderless)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정보경제의 공간 네트워크에서 컴퓨터·네트워크의 보급은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관련 산업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M. Castells이 강조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공간이란 장소가 없이 유동공간을 창출하고, 이 공간 속에서 전자상거래(e-business) 등이 새로운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래의 산업이 장소가 불가결하였고 산업입지론이 존재한 실제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가상공간(virtual space)의 등장(矢田, 2000, pp.310-311)은 정보경제의 공간 네트워크로 큰 전환을 가져왔기 때문에 경제지리학의 새로운 연구영역이라 할 수 있다(그림 3).

4. 결론

1956~2005년 사이에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출판된 국내외 경제지리학 연구물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지리학 성립 50년의 경제지리학 연구 틀의 조류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의 한국경제지리학은 각 연구분야에서 꾸준한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미흡하여 연구분야의 발달측면에서 본연의 모습을 갖추어 왔다고는 할 수 없고 세계경제지리학계의 주된 이슈의 등장에 맞추어 유행주의의 쓸림 현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한국경제지리학 연구의 역사가 짧으며 경제지리학의 초석이 잘 마련되지 못하였고, 또 연구자의 인적 자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경제지리학 발달에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각자의 연구분야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아가 그 분야에 대한 매진이 해결의 단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조사연구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거시적·통계적 분석방법이 주류를 이루어 미시적인 지역조사를 통하여 세계연구의 추세에 발맞추어 새로운 방법론 및 이론화, 법칙화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지리학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지리학의 정체성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아 한국경제지리학의 철저한 지역조사, 경제·사회·문화의 선호, 자연환경 중시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지리학과 지역연구의 관계에 대하여 경제지리학이 이론지향이 강하지만 현장성이 배제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제3세계를 무대로 연구를 전개시키고 있는 여러 학문 중에서 경제지리학은 현상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여야 한다. 개발모형, 지역개념, 연구대상과 분석방법에 관해서는 꽤 어느 정도 다른 학문과 공유하고 있지만 경제지리학의 우위성, 존재의미, 相補的 역할을 충족시키는가, 그리고 지역간 격차나 불평등·빈곤 등 경제지리학의 입장에서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주제의 중요성을 늘어

온 과제로서 재제기하여야 한다. 경제지리학의 연구 성과는 학계의 공유재산으로서 축적되는 것만이 아니고 널리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면에서 경제지리학이 어떻게 하면 사회과학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에 이바지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

- 1) 1945년 중등학교 지리교사의 모임으로 발족한 朝鮮地理學會라는 명칭에서 1949년 학회총회에서 그 이름이 대한지리학회로 바뀌었음.
- 2) 제도의 핵심적인 주체의 인간과 기술의 바탕이 되는 지식의 진화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진화와 생물진화가 구조적인 유추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물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생태계도 진화하며 이 가운데 지식의 진화과정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 3) 이 용어는 유럽의 진보의 뿌리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대학 사회문제연구소가 모태가 된 프랑크푸르트학파인 T. Adorno와 M. Horkheimer가 1947년에 발간한 그들의 저서『계몽의 변증법』에서 문화의 대중화를 비판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문화산업 부문에서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이에 따른 국가간의 문화적 지배와 종속,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 문화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과 육성 등의 문제가 국가정책의 관심 대상으로 부상한 198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
- 4) 세계도시는 R.B. Cohen, J. Friedmann이 이름 붙였으며, 다국적기업의 출현과 정보·통신의 발달, 세계무역기구(W.T.O.) 체계의 등장으로 세계경제를 통제·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도시로 세계의 중추관리기능을 가진 결절지를 말한다.
- 5) 지식기반산업이란 시장수요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인간의 창의성과 기술융합, 즉 지식의 적극적인 활용에 기반을 둔 산업을 말한다.
- 6) 1963년 第1號가 발간된 3년 후인 1966년에 第2號가, 第3

- 號는 1968년에 출간되었고 그 후 매년 한 호씩 발간되었으며, 1974년부터 한 해에 두 호씩 출간되기 시작했다.
- 7) 신경제공간학을 영어권에서는 new economic geography나 geographical economics 또는 spatial economics이라 부르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신공간경제학이나 신경제지리학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다만 현재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번역어로서는 그 분야의 창설자의 한 사람인 후지타(藤田昌久)가 제창한 신공간경제학을 들 수가 있다(與倉 2006, p.290).
 - 8) 식료에 관해서 종래의 생산부문만을 중시한 관점이 아니고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상호관계를 일체화하여 파악한 개념이다.
 - 9) 세계화와 더불어 개발도상국 생산자와 선진국의 소비자가 상품의 유통에 의해 결합하게 되었다. 상품사슬은 원료의 변형에서 중간 제조단계를 거쳐 시장에 완제품을 배송하는 공급사슬(supply chain)의 모든 단계에 걸쳐 있는 기능으로 통합된 생산 네트워크와 거래 및 서비스 활동을 말하는데, G. Gereffi가 경제활동의 사슬 개념화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다.
 - 10) 장소 마케팅과 도시 마케팅과의 차이점은 지리학이나 도시계획 분야의 경우 장소 마케팅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도시문화나 관광분야 전공자로 문화적 관점을 중시하고, 도시 마케팅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학자들은 대부분 도시경영, 도시개발 등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도시학 전공자들이다. 그리고 마케팅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장소 마케팅은 내부 지향적이고, 문화 지향적이며, 정체성 지향적인데 대하여, 도시 마케팅은 외부 지향적이고, 경제 지향적이며, 이미지 지향적이다.

참고문헌

권오혁, 2000, *신산업지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金基斗·韓柱成, 1998, “용인시지역 냉장·냉동창고의 입지와 입출고지,” *대한지리학회지* 33, pp.605-622.
 김기혁, 1999a, “영국의 환경농업정책과 농민의 태도 연구,”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지원 대학해외파견교수 연구보고논문.
 김기혁 역, 1999b, *서유럽의 농업변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김기혁, 2001, “인문지리학의 방법론,” “인문지리학의 연구주제,” 제29차 세계지리학회대회 조직위원회,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서울: 한울아카데미, pp.169-203, pp.213-230.
 金相烈, 1999, “청주시 거주 중학교 교원 역통근의 공간적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34, pp.63-84.
 金相昊, 1969, “李朝前期의 水田農業研究,” 文敎部 學術助成費에 의한 報告書.
 김선배, 2001, “산업의 지식집약화를 위한 혁신체제 구축 방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 pp.61-76.
 金善姬·韓柱成, 2003, “농산물 물류센터의 入荷地와 配送의 지역유형 - 농협 청주 농산물 물류센터를 사례로 -,” *대한지리학회지* 38, pp.104-126.
 김묵환·박행웅·오은주 역, 2003,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서울: 한울아카데미(Castells, M.,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Blackwell).
 金英淑, 2003, “인터넷 쇼핑에 의한 상품판매의 지역적 특성 - G eshop의 경우 -,” *대한지리학회지* 38, pp.769-785.
 김유미·이금숙, 2001, “문화산업의 입지적 특성 분석 - 음반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 pp.37-60.
 金在珖 譯, 1988, *農業地理學 入門*, 서울: 敎學研究社.
 김 현, 2001, “우리나라 인터넷 정보유통의 공간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영우·이희연·최재현, 2000, *경제·금융·도시의 세계화*, 서울: 다락방.
 朴魯植·趙東奎·吉鎔鉉, 1969, “太白山地域의 土地分類,” 慶熙大學校 國土綜合開發研究所, 地域開發論文集 3, pp.99-124.
 徐柱鎭·韓柱成, 1999, “通信販賣에 의한 產地直送의 空間構造 - 소백산 영지버섯과 보은 대추를 사례로 -,” *대한지리학회지* 34, pp.99-118.
 徐贊基, 1958, “慶尙北道 農業地域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徐贊基, 1962, “經營面에서 본 南韓의 農業地域區分,” 慶北大學校 論文集 6, pp.327-381.
 徐贊基, 1974, “韓國農業의 空間 model에 關한 研究 - 集約度 分布와 그 回歸分析 -,” *地理學* 9, pp.1-18.
 徐贊基, 1975, “韓國農業의 地域構造에 關한 研究,” 慶北大

- 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徐贊基, 1992, “兼業農業의 地域分化 -1960~1980 -,” 地理學 27, pp.1-20.
- 徐贊基, 1996, “한국 경제지리학 반세기 - 연구성과와 과제 -,” 토론문, 대한지리학회지 31, pp.190-196.
- 成俊鏞, 1971, “大田市 中心商街의 構造,” 公州師範大學 論文集 9, pp.191-210.
- 박삼옥, 1996, “한국 경제지리학 반세기 - 연구성과와 과제 -,” 대한지리학회지 31, pp.160-190.
- 박삼옥 · 주성재 · 남기범 · 황주성 역, 1998, 경제구조조정과 산업공간의 변화, 서울: 한올아카데미.
- 박삼옥, 2002, “경제지리학,” 대한민국학술원, 한국의 학술연구 - 인문지리학 -, pp.97-142.
- 박삼옥, 2005, “한국의 지리학연구 60년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40, pp.770-788.
- 박삼옥, 2006, “지식정보사회의 신경계공간과 지리학 연구의 방향,” 대한지리학회지 41, pp.639-656.
- 박영한 · 이정록 · 안영진 역, 2002, 노동시장의 지리학, 서울: 한올아카데미.
- 朴侗玄, 1995, “航空旅客의 流動からみた國際的都市システム - 日本の地方都市と諸都市との結合關係 : 福岡に注目して -,” 經濟地理學年報 41, pp.135-144.
- 朴贊石, 1966, “大邱농금 生産地域의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변병설, 2005,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계획,” 地理學研究 39, pp.491-500.
- 오홍석, 2004, 현대 한국지리학사, 서울: 도서출판 줌 · 북메이트, pp.165-178, pp.451-457.
- 柳佑益, 1972, “韓國의 定期市場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 中心地 階層構造를 中心으로 -,” 駱山地理 2, pp.1-14.
- 柳佑益, 1992, “지역개발에 있어 환경윤리의 문제,” 地理學 27, pp.29-45.
- 李東潤, 1970, “서울 近郊地域의 花卉栽培에 對한 立地와 花卉商品의 流通類型에 對한 研究,” 서울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이재하 · 홍순완, 1992, 한국의 장시 -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 서울: 민음사.
- 李中雨, 1968, “慶尙北道에 있어서 市場聚落의 分布와 그 商圈,”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李中雨, 1970, “江原道の 市場分布,” 慶北大學校 教育大學院 論文集 1, pp.17-51.
- 李廷冕, 1956, “서울市の 소채 및 연료에 關한 地理學的 考察,”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李廷冕, 1966, “韓國 農業地域 設定에 對한 研究(上),” 地理學 2, pp.1-13.
- 李定妍, 1990, “企業附設研究所의 分布特性에 關한 研究,” 地理教育論集 24, pp.68-85.
- 李政勳, 2002, “東京大都市圏における都心オフィス機能の郊外移轉の要因と費用,” 人文地理 54, pp.452-470.
- 이진, 2001, “서울시 게임산업의 집적과 학습지역 형성에 관한 연구,” 地理學叢書 37, pp.67-85.
- 李鶴源, 1974, “서울을 中心으로 한 酪農立地에 關한 研究,” 地理學 10, pp.61-81.
- 李喜演, 1988, 經濟地理學 - 空間經濟의 理論과 實際 -, 서울: 法文社.
- 李喜演, 1990, “生産者 서비스 産業의 差別的 成長과 空間的 分業化에 關한 研究,” 地域研究 6(2), pp.123-147.
- 李喜演, 1993, “우리나라 情報關聯 職種の 空間的 分布와 地域的 隔差에 關한 研究,” 地域研究 9, pp.3-24.
- 이희연, 1996a, “응용지리학 일반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31, pp.329-345.
- 이희연 · 이정미, 1996b, “GIS기법을 활용한 패스트푸드점의 입지분석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강남구를 중심으로 -,” 한국GIS학회지 4, pp.131-146.
- 이희연, 2001, “지리학의 응용과 참여,” 제29차 세계지리학대회 조직위원회,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서울: 한올아카데미, pp.348-390.
- 이희연 · 이난경, 2005, “인터넷 영화의 유통구조와 인터넷 영화산업의 공간적 집적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 pp.107-130.
- 張在球 · 韓柱成, 2000, “四川空港 항공 화물수송의 시·공간적 특성과 배후지,” 대한지리학회지 35, pp.53-75.
- 田成大, 1968, “都市農業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 首都圈을 中心으로 -,” 地理學 3, pp.19-29.
- 鄭恩淑 · 韓柱成, 2002, “생활정보신문 사업체의 배포지역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37, pp.41-60.
- 趙東奎, 1976, “應用地理學,” 地理學 13, pp.50-56.
- 曹壽敬, 1993, “釜山 컨테이너 수출항의 背後地와 指向地의 空間構造,” 地理學 28, pp.249-267.
- 曹壽敬 · 韓柱成, 1990, “淸州市 高速버스 터미널의 後背地

- 와 指向地,” 地理學 41, pp.19-34.
- 최병두 역, 1995, 자본의 한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 최병두 역, 2001, 정보도시 - 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 서울: 한울아카데미(Castells, M., 1989, *The Informational City*, Blackwell: Oxford).
- 崔雲植, 1972, “消費者的 購買行爲에 關한 研究,” 地理學 7, pp.40-52.
- 최운식, 1995, 한국의 육상교통,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韓柱成, 1974, “사과의 流通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韓柱成, 1982a, “韓國における自動車貨物流動の空間的パターンとその°化,” 東北地理 34, pp.213-223.
- 韓柱成, 1982b, “韓國における旅客流動の地域構造,” 人文地理 34, pp.481-502.
- 韓柱成, 1983, “日本における旅客流動の空間的パターンとその°化,” 地理學評論 56, pp.553-566.
- 韓柱成, 1984, “日本における自動車貨物流動の空間的パターンとその°化,” 人文地理 36, pp.327-346.
- 韓柱成, 1985a, 交通流動의 地域構造, 서울: 寶晉齋出版社.
- 韓柱成, 1985b, “시멘트 流通의 地域構造,” 地理學 31, pp.1-15.
- 韓柱成, 1986, 經濟地理學, 서울: 教學研究社.
- 韓柱成, 1988a, “韓國における石油製品流通の空間的形態,” 東北地理 40, pp.15-30.
- 韓柱成, 1988b, “韓國における家電製品販賣網の空間組織,” 濟地理學年報 34, pp.145-157.
- 韓柱成, 1989, “韓國における自動車の地域的流通°系,” 濟地理學年報 35, pp.110-129.
- 韓柱成, 1992a, “韓國における小賣業販賣活動の空間的°容,” 季刊地理學 44, pp.37-47.
- 韓柱成, 1992b, “韓國忠清北道における市外バス事業°の路線網と競合の形態,” 季刊地理學 44, pp.115-128.
- 韓柱成, 1993, “韓國における路線トラック輸送網の形成過程,” 人文地理 45, pp.311-323.
- 韓柱成, 1994, 流通의 空間構造, 서울: 教學研究社.
- 韓柱成, 1995, “日本における長距離高速バス路線網の發達,” 季刊地理學 47, pp.203-211.
- 韓柱成, 1996, “수도권지역 소매업 경영의 공간적 변용,” 대한지리학회지 31, pp.19-37.
- 韓柱成, 1997, “케이블TV 放送局의 立地와 空間組織,” 대한지리학회지 32, pp.141-153.
- 한주성, 1998, “세계화 시대의 국제물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 pp.57-74.
- 한주성, 1999, “다국적 소매기업의 국내 점포와 세계 사업소망의 입지전개 - 日本 다이에 슈퍼체인을 사례로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 pp.183-194.
- 한주성, 2003, 유통지리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 韓柱成, 2004a, “재생용 사업의 입지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 pp.775-786.
- 韓柱成, 2004b, “재활용 생활계 폐기물의 수거경로와 지역적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39, pp.88-101.
- 韓柱成, 2005, “통관거점을 이용한 국제물류의 지역구조,” 대한지리학회지 40, pp.631-652.
- 한주성, 2006, 경제지리학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 韓柱成·張在球, 1999, “四川空港의 지위변화와 여객 배후지,” 대한지리학회지 34, pp.47-61.
- 許宇巨, 1974, “金海平野의 園藝農業의 特性과 地域分化,” 地理學 9, pp.43-53.
- 許宇巨, 1986, “多次元尺度法에 의한 서울住民의 交通手段選好 分析,” 大韓交通學會誌 4, pp.12-27.
- 許宇巨, 1987, “地方工業都市가 背後地域에 미치는 波及效果의 地域的 範圍와 特性 - 蔚山의 通勤圈과 通勤者 特性에 關한 事例研究 -,” 地理學論叢 14, pp.291-309.
- 허우궁, 2002, “응용지리학,” 대한민국학술원, 한국의 학술연구 - 인문지리학 -, pp.291-338.
- 허우궁, 2003, “인터넷 하이퍼링크로 본 도시 네트워크,” 대한지리학회지 38, pp.518-534.
- 邢基柱, 1960, “京仁工業地帶를 例로 한 工業의 分布와 地域構造,”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邢基柱, 1965, “韓國에 있어서 工業의 集積과 需要因子(I),” 慶北大學校 論文集 9, pp.179-193.
- 邢基柱, 1966a, “韓國에 있어서 工業의 集積과 需要因子(II),” 慶北大學校 論文集 10, pp.179-193.
- 邢基柱, 1966b, “韓國에 있어서 工業集積의 一般樣相,” 地理學 2, pp.27-34.
- 邢基柱, 1966c, “大邱市 中心商街의 構造와 分化,” 只山先生華甲記念論文集, pp.225-247.
- 邢基柱, 1968, “工業立地의 動向 - 大邱市 工業立地 形成過程을 中心으로 -,”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한 報告書.

- 邢基柱, 1975, “韓國 工業立地の 展開過程(1) - 方法論・植民地的 工業化 -,” 地理學 12, pp.27-51.
- 邢基柱, 1976, “經濟地理學,” 地理學 13, pp.28-35.
- 邢基柱, 1993, 農業地理學, 서울: 法文社.
- 형기주, 1998. “경제지리학 - 혼돈과 도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 pp.7-10.
- 黃晚益, 1983, “製造業에서 企業構造가 分布에 미치는 影響 - 美國의 Mobile Home 製造業을 중심으로 -,” 地理學 28, pp.35-45.
- 矢田俊文, 2000, “現代經濟地理學と地域構造論,” 矢田俊文・松原宏 編, 現代經濟地理學 - その潮流と地域構造論 -,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pp.279-312.
- 矢田俊文, 2003, “前後日本の經濟地理學の潮流 - 經濟地理學會50周年によせて-,” 經濟地理學年報 49, pp.395-414.
- 矢田俊文・松原宏 編, 2000, 現代經濟地理學 - その潮流と地域構造論 -,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 外川健一, 2002, “環境問題 - 리サイクル事業の立地 -,” 松原宏 編, 立地論入門, 東京: 古今書院, pp.118-129.
- 與倉 豊, 2006, “産業集積論を巡る主流派經濟學および經濟地理學における議論の検討 - 新しい空間經濟學の成果を中心に -,” 經濟地理學年報 52, pp.283-296.
- Amin, S., 1976, *Unequal Development : Essay on the Social Formations of Peripheral Capitalism*, Sussex: Harvester Press.
- Baik, Seonhae, 2006, “The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Korean human geography”, 人文地理 58, pp.572-587.
- Bell, D., 1974,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London: Heinemann.
- Castelle, M., 1989, *Informational City :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Oxford: Basil Blackwell.
- Choi, Jae-Heon, 1993, “Spatial analysis of financial activities in the Korean urba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28, pp.321-355.
- Choi, Ji-Sun, 2003, “Importance of face-to-face meeting and physical proximity in public B2B electronic marketplaces in Korea”, 地域研究 19(2), pp.143-167.
- Dunn, G.A., 1958, “Economic geographic studies for Korean agriculture in connection with rice”, 서울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Freeman, C., and Soete, L., 1997, *The Economics of Industrial Innovations(3rd eds.)*, Cambridge: The M.I.T. Press.
- Friedmann, J., 1966, *Regional Development Policy : A Case Study of Venezuela*, Cambridge: The MIT Press.
- Gershuny, J.I. and Miles, I.D., 1983, *The New Service Economy : The Transformation of Employment in Industrial Societies*, London : Frances Printer.
- Greenhut, M.L., 1956, *Plant Location in Theory and in Practice : The Economic of Space*, Chapel Hill :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Hirschman, A.O., 1958,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epworth, M.E., 1989, *Geography of the Information Economy*, London: Belhaven Press.
- Heron, R.L. and Harrington, J.W., 2005, *New Economic Spaces : New Economic Geographies*, Berlington: Ashgate.
- Hughes, A. and Reimer, S.(eds.), 2004, *Geographies of Commodity Chains*, London : Routledge.
- James, P.E. and Jones, C.F.(eds.), 1954, *American Geography : Inventory and Prospect*, Syracus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by Syracuse University Press.
- Joh, Chang-Hyeon, 2004, *Measuring and Predicting Adaption in Multidimensional Activity-Travel Patterns*, Eindhoven: Eindhoven University Press.
- Kellerman, A., 2002, *The Internet on Earth : A Geography of Information*,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Kim, Dae-Young, 2000,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agglomeration areas of advanced producer services in Seoul : Advertising-related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5, pp.713-744.
- Krugman, P., 1991, *Geography and Trade*,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 Lee, Keumsook and Lee, Hee-Yeon, 1998, “A new algorithm for graph-theoretic nodal accessibility measurement”, *Geographical Analysis* 30, pp.1-14.

- Leinbch, T.R. and Brunn, S.D., 2001, *World of E-Commerce : Economic, Geographical and Social Dimensions*, Chichester : John Wiley & Sons.
- Massey, D., 1995, *Spatial Divisions of Labour : Social Structures and the Geography of Production(2nd ed.)*, London : Macmillan.
- Myrdal, G., 1957,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 Duckworth.
- O'Loughlin, J., Staeheli, L., and Greenberg, E.(eds.), 2004, *Globalization and Its Outcomes*,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Park Sam Oak, 1990, *Daewoo : Corporate growth and spatial organization*, in Smidt, M. and Wever, E.(eds.), *The Corporate Firm in a Changing World Economy*, London : Routledge, pp.207-233.
- Park Sam Oak and Wheeler, J.O., 1984, "The role of industrial organization in change in manufacturing in a peripheral region of the U.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75, pp.22-35.
- Park, Siyoung, 1981, "Rural development in Korea : The role of periodic market", *Economic Geography* 57, pp.113-126.
- Piore, M.J. and Sabel, C.F.,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 Possibilities for Prosperity*, New York : Basic Books.
- Porter, M., 1990, *The Competition Advantages of Nations*, New York : The Free Press.
- Scott, A.J., 1988, *New Industrial Spaces : Flexible Production Organ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 American and Western Europe*, London : Pion.
- Scott, A.J., 2000, *Economic geography : The great half-century*, in Clark, G.L., Feldman, M.P. and Gertler, M.S.,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pp.18-44.
- Smith, D.M., 1971, *Industrial Location : An Economic Geographical Analysis*, New York : John Wiley & Sons.
- Stoper, M., 1997, *The Regional World : Territorial Development in a Global Economy*,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Toffler, A., 1981, *The Third Wave*, London : Pan.
- Vernon, R., 196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0, pp.190-207.
- Wallerstein, I., 1974,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lpert, J., 1964,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a spatial contex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54, pp.537-558.
- Yu, Woo-ik, 1993, "The Northeast Asian Rim : A geopolitical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28, pp.312-320.
- 교신 : 韓柱成,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 (개신동)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Tel. : 043-261-2697, Fax. : 043-276-2693, E-mail : jshan@chungbuk.ac.kr
- Correspondence : Ju-Seong Han,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410 Seongbong-no (Gaesin-dong), Hungduk-gu, Cheongju city, 361-763 Korea, Tel. : 043-261-2697, Fax. : 043-276-2693, E-mail : jshan@chungbuk.ac.kr
- 최초투고일 2007년 10월 1일
최종접수일 2007년 10월 22일

The History of Korean Economic Geography Framework during Fifty Years (1956~2005)*

Ju-Seong Han**

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of approach methods of research framework in the history of Korean economic geography during the last fifty years(1956~2005). The five factors that have influenced Korean economic geography are Korean geography, European, American, and Japanese geography, fundamental theories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regional problems, and culture. The study of Korean economic geography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period of cradle of economic geography(1956~1962)', 'period of establishment of economic geography(1963~later 1970s)', 'period of leap of economic geography (the former half of 1980s~the former half of 1990s)', and 'period of transition of economic geography (since later 1990s)'. And research framework of Korean economic geography has changed from the regional structure theory in 'period of leap' to the spatial system of economies and network theory in 'period of transition'. Spatial system of economies and network theory consists of spatial system of world economies, spatial system of national economies, spatial system of regional economies, spatial network of enterprise economies, and spatial network of information economies.

Keywords : fifty years of Korean economic geography, research framework, division into periods, regional structure, spatial system of economies, network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07.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